

한겨울철의 구수한 군밤, 군고구마향기



귀부리 얼어드는 맨잔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평양시내의 곳곳에서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중구역 경림과일남새상점 군고구마매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 러진 껍질사이로 노란 속살을 드러낸 군밤과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를 받아안고 빙글거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펼쳐진 단 군고구마를 맛보고 식구들생각에 한봉지 사두고 간다는 녀성도 있다.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향기는 밤새에 늙은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길을 가던 충각도 처녀의 손목을 잡아준다.

《군고구마맛은 언제 보아도 별맛이거던.》

《추운 날에 더운물까지 따라주는 봉사자들의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독특한 그 향기에 끌려 따끈한 군밤, 군고구마를 후후 불며 달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겨울철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선의 국가상징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장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체의 독창적인 구상과 세심한 손질에 태어난 공화국국장은 당고있는 내용과 색채, 구도에서 자주독립국가, 불패의 위력과 통성변혁 공화국의 앞날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을 통하여 공화국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을 통하여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도래하여 더욱더 부강번영해가는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뚜렷이 상징하고 있다.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은 지난날 갖은 천재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인민들

이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당시의 현실은 물론 농업발전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고있다. 국장의 한가운데 새겨진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상징하고있는 것으로서 날로 통성변혁할 공화국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

하게 해주고있다. 타원형으로 된 국장의 붉은 띠와 그우에 새겨진 국호를 통하여 일심단결로 승리떨치는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밝은 빛을 뿌리며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배가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낸인 문학예술인들

시인 박팔양

김려수라는 필명으로 불려온 박팔양은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1920년대에 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자로 있었다. 그는 서정시 《물노래》를 발표한 후 《카프》성원으로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문학활동을 적극 벌였다.

초기에 쓴 《공상》, 《려명이집》, 《밤차》 등에서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 문인힘으로 밝은 앞날을 앞당겨줄 신념과 락관을 동포들에게 심어주었다. 해방전 그의 창작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진달래》이다.

박팔양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지령도하시느 항일혁명투쟁에 적극 고무되어 시 《봄》, 《승리의 봄》, 《선구자》 등

도 내놓았다.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다시맞는 영광의 날》, 《영광찬란한 자유독립의 길로》, 전쟁시기에는 《진격의 밤》, 《우리학생들》 등을, 그 이후시기에는 《건설의 노래》, 《천리마의 노래》, 《비날론이야기》, 《농촌으로 가는 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심으로 평안북도당위원회 기관지 《바람》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의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대학에 돌아온 박팔양은 교육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년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도 내놓았다.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다시맞는 영광의 날》, 《영광찬란한 자유독립의 길로》, 전쟁시기에는 《진격의 밤》, 《우리학생들》 등을, 그 이후시기에는 《건설의 노래》, 《천리마의 노래》, 《비날론이야기》, 《농촌으로 가는 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심으로 평안북도당위원회 기관지 《바람》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의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대학에 돌아온 박팔양은 교육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년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크나큰 신임속에 현역작가로 글을 썼다. 특히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노래한 현시, 송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박팔양선집》과 《박팔양시선집》은 그의 시적재능과 정열을 보여주는 도서들이다.

본사기자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확립

공화국의 최첨단고려약공장에서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효능높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금당화의 약리작용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 생산체계를 실현하려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공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장종업원들을 평양의학대학원 견적교육부에 입학시키고 실력을 부단히 높였다. 이 과정에 금당화의 생리적특성에 맞는 비배판리방법도 찾아내고 약리성분들을 깨끗이 추출해낼수 있는 설비도



제작하였다. 또한 추출해낸 금당화엑스를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배합비율을 찾아내고 금당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업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효능높은 금당화제형의 고려약들이 나오게 되었다. 천연물추출제품인 금당화엑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함량은 은행나무잎이나 콩의 수신패에 달하며 비타민E함량은 소팍이나 신선한 꿀꿀의 수천배에 달한다. 또한 금당화꽃과 금당화면역활성성약도 여러가지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떡국만들기

떡국은 쟁고기를 넣고 끓이는것이 제격이지만 쟁이 없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대신 쓰기도 하였다. 찰떡갈로 떡국대를 썰어 락생모양의 떡으로 떡국을 만들어먹는가 하면 백미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빚어서 국물에 넣고 생떡국을 끓여먹는 등 그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다.

떡국을 만들 때 먼저 백미가루로 떡국대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찬물에 헹군 다음 쟁고기국물이나 닭고기국물에 넣어 3~5분정도 끓인다. 끓인 떡국을 대접에 담고 과, 후추, 깨, 김가루 등을 둔다. 떡국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흡수도 잘된다.

본사기자



《민속무용》과 《민속무용》은 다 같이 해당 민족이 즐겨 추는 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뜻을 바로 알고 정확히 써야 한다. 민속무용이 해당 인민들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무용이라면 민족무용은 인간생활과 풍속, 감정

은성물고기 화석층은 온성군 향당리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비탈 면에 있다. 물고기 화석은 1975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하세의 세션주층 황록색분사암과 니암층으로 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조개류, 골뎅이류 등의 화석들도 나왔다. 화석층의 너비는 4m, 길이는 30m이다. 이 화석층에서 온성물고기 화석이 나왔다. 온성물고기 화석은 길이가 34~45cm이고 높이는 15.5cm

정도이다. 대가리는 둥글고 입에는 가는 이빨이 있다. 척추마디는 38~42개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가시는 11~12개이며 배지느러미가시는 8~9개이다. 옆면에는 비교적 큰 등근 비늘이 덮여있다. 온성물고기 화석은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표본이며 척추동물 특히 물고기류의 진화발전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사화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1)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고구려시기 동비홀고을(개성시 서북일대)이 자리잡은 레성강기슭의 풍류동마을에서 있는 일이다. 사시절 마를줄 모르고 석송산골안에서 훌러내리는 맑은 시냇가 동네의 한복판은 호르는 풍치수려한 동네라고 하여 풍류동이라 불리우는 이 마을에 무달이라고 하는 30대의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진봉홍빛 북송아꽃이 만발하고 피골새들이 날아에는 좋은 절기에 무달은 아침부터 누렁소 암수 한쌍에 연장을 메워가지고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따라오는 바람에 무달은 구경군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아버지는 예순이 되었지만 아직도 쾌기와 기운이 있어 보람을 흥겹게 드라루며 밭을 보기 좋게 갈아나갔다. 그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무달의 눈에는 존경과 효성의 빛이 가득 어렸다. 얼마나 자애롭고 인정많은 아버지인가, 또 아는것은 얼마나 많고...

무달이 알고있는 세상리치에 대한 대부분은 아버지에게서 배운것이었다. 소를 부리는 일만 봐도 그러했다.

아버지는 무달이 잔빠가 굳기 전에 벌레 소를 부리자면 뛰니뛰니해도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며 말기 쉽게 일 깨워주었다. 소에게는 타고난 부축점이 있다. 몸집이 큰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까닭에 풀배(1위)며 물배(2위)를 포함해서 4개의 밤주머니가 있는데 풀배는 엄청나게 큰데다가 원컨으로 치우쳐있다. 그러다보니 누움쪽에 앞발로 웃음을 고이면서 풀배에 부당이 실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때는 소가 왼쪽으로 넘어질수 있다. 그때 허약한 소들은 제힘으로 일어지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육중한 몸뚱이가 원컨으로 치우친 풀배를 꼭 누르다보니 새김질할 풀이 들어있는 밤주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여 그안의 나뭇바람이 우아래로 통하지 못하니 질식해서 나중에는 죽을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소를 부리는 사람은 소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달구지나 연장을 메운 소는 오른쪽으로만 돌릴수 있도록 소고뼈를 오른쪽에 둔것이다. 잘 달리는 파과 달리 소는 엄청나게 큰 풀배때문에 동작이 굼뜨다. 그래서 한번

이 몽클하였다. 무쟁을 열어놓은 단지에서 땀이죽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을 물물 울리었다. 늙은이의 몸뚱이에는 그저 뜨끈한 음식이 제일이라면서 늘 시아버지의 밥대접에 원심을 쓰는 안해였다. 《아, 잘 먹었다.》 뜨끈한 땀이죽을 달게 자시는 아버지를 보느라니 안해가 더욱 고와보았다. 안해의 얼굴이 고무면 새



라고 믿었던 안해에 대한 믿음이 출지에 무너지는것같다. 그사이 시아버지가 불편해할새라 각근하게 돌봐드린 안해의 그 모든 효성스러운 행실이 가식이었다 말인가. 사람이란 어려운 일에 다쳐봐야 안했다고 안해가 그런 서론짜리 녀인이라고 생각되자 기분이 참치고말았다. 무달이 입이 쓰지워 말을 못하는데 안해가 진속을 터놓았다. 《어- 맛잖아. 그저 이 뜨끈하게 들어가야 속이 후련해진다니, 한테 아가! 왜 안색이 좋지 못하느냐?》 그제야 무달은 안해의 얼굴이 전과 달리 화려함을 알아보았다. 안해는 그전부터 시아버지에게는 숨기느것이 없었다. 《아버님, 이차 (우물집) 앞을 지나오는데 그 집 아버님이 마당에 나와 한탄하더군요. 자기같은 늙은이를 물어가는 호랑이는 왜 없느냐고...》 무달은 대뜸 기분이 잡쳐 이마살을 찡그렸다. 또 《우물집》머느리인가. 《우물집》머느리의 델떡먹은 행실이 또 되살아난 모양이다. 밥술이나 먹는 집의 딸이라고 시집은 첫날부터 시부모 돌볼테데 불손하기 지극인데 지어는 로망했다고까지 역정을 부리는 못된 녀인이었다. 늙은이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키운 부모들이고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온 귀인들이다. 젊은이들한테 힘과 용기가 있다면 늙은이들에게는 깊은

이렇게 되어 무달의 내외

동상치료에 좋은 몇가지 방법

동상은 기온이 그리 낮지 않아도 습도가 높으면 쉽게 입을수 있다. 또한 바람이 세면 피부결면에서 열손실이 많아지면서 동상을 입게 된다. 장갑, 양말, 신발 등이 젖었을 때, 작은 신발을 신었을 때에도 동상을 입을수 있다. 다음의 민간요법으로 동상을 치료할수 있다. -동상을 입은 부위가 벌거벗겨 부었으면 적당한 량의 고추가루나 생강, 마늘을 물

에 넣고 말아서 그 물로 동상부위를 씻는다. -밭에 동상을 입었을 때에는 밀가루를 칠할우에 놓고 닭으면서 태운다. 이때 생기는 연기에 언 부위를 2~3분간 충분히 쏘인다. -가지부리를 적당한 물에 달인 다음 그 물로 언 부위를 하루 두세번씩 약 한주일 정도 씻는다. -감자를 구워 껍질을 벗기고 짓찧어서 풀처럼 만든 다음 언 부위에 붙여도 좋다. 본사기자

역사일화

고니를 새기다 못되면 파오기라도 된다

학문이나 수양은 단계를 밟아 낮은데로부터 점차 높은데로 올라가야 성공한다는 뜻으로서 옛사람들의 학문, 수양의 요령을 담은 말이다. 옛날 리성이 서울에 공부하러 가있는 조카에게 화답글을 써보냈다. 《내가 지금 량학사, 장학사 두분을 스승으로 삼고 두분의 학문과 도덕을 배우고있는데 내 생각은 두사람이 아니라 한사람을 먼저 배워야 할줄안다. 사람인즉 장학사가 사람됨이 확실하고 겸박해서 나도 그 선생을 존경하니 너는 그분을 따라배우기 바란다.